

# 원유 가격폭등 석유화학 큰 타격

## 무역협회, 할당관세 무세화 요구 ... 중국·타이완은 수입관세 없어

한국무역협회가 5월12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유 할당관세 무세화, 휘발유 교통세 조속 인하, 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1990년 10월 걸프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상승이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경쟁국인 중국과 타이완의 원유 수입관세가 영세율인 점을 감안해 원유 할당관세를 무세화하고 고유가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현행 리터당 8원이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의 징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리터당 559원인 휘발유 교통세를 409원으로 내려 휘발유 관련 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7%를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고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해외자원 개발자금 지원 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성공불 용자조건을 크게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산업계는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5/13>